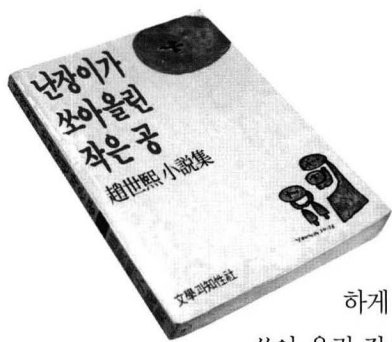


KBS 김형일 PD

조세희 원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TV드라마로 제작



1970년대 산업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병리를 적나라하게 폭로한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1978)이 TV드라마로 제작

됐다. KBS가 2005년부터 10년간 한국의 근현대문학 100편을 영상으로 정리하는 'TV문학관 100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월 3일에 방영한다. <난소공>을 제작한 김형일(42) PD는 “만들고 보니까 또 다른 방법이 보이더라”며 “출간된 지 30년이 훌쩍 넘은 원작을 영상으로 옮기면서 시청자들의 공감대 얻을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게 가장 절실한 고민거리였다”고 설명했다. 소설 속에서 나오는 도시 빈민들의 삶과 노동운동을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보여주기에는 시청자들의 경험층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해 각색했다. <뫼비우스의 띠> <칼날> <우주여행>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육교위에서> <궤도회전> <기계도시> <은강노동가족의 생계비>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클라인씨의 병>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에필로그> 12편의 연작소설로 구성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도시 빈민의 가난한 삶과 처참한 패배의 한을 다루고 있다. 촬영에 들어가기 전 “주인공 난장이는 실제 난장이가 배역을 했으면 한다”는 조세희 작가의 말에 실제 난장이를 찾기 위해 수소문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마땅한 배역이 없어 고심하던 차에 우연하게 연극인 강성해 씨를 소개받아 촬영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성장통을 겪으면서 폭력적이고 부당하게 희생할 수밖에 없는 어두운 면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삶을 보상받지 못한, 운명지어진 가족들의 이야기를 비극적으로 해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드라마는 철저 계고장을 받은 가족들이 각자 나름대로 터전을 지키고자 힘겹게 애를 쓰지만 이미 실패로 운명지어진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최근 원작을 재료로 삼아 다양한 매체와 결합시켜 문화산업의 시너지를 높이고 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시청률과 상업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드라마 제작 환경에서 작품성과 경쟁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원작을 영상으로 담는 것에 말 못할 부담이 따르는 게 사실.

“《난소공》을 누군가 드라마로 다시 제작한다면 1970년대 시대상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재생한다면 시간은 초월하겠죠. 그게 곧 고전이 아닐까요.” **김형일**

